



아 이 레 보 \_ 하 재 흥 \_ 대 표

디지털도어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게이트맨 시리즈, 그 화려한 성공을 이끈 아이레보의 하재흥 대표는 운명처럼 사업가의 길에 뛰어들어 오늘의 명성을 일구어 냈다. 세계를 무대로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하대표의 성공스토리 속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극복, 물리경영이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다.

홈네트워크 시대를 여는  
디지털 기술독립군

## 디지털도어락에서 홈시큐리티까지

세계 특히 암호기술로 디지털도어락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는 아이레보의 이재홍 대표. 분명한 비전과 경영철학을 가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객의 삶을 안전하고 운택하게 지켜주려는 사명감만이 존재한다. 사옥 정문에 붙은 '불량은 고객을 향한 범죄행위입니다'라는 문구는 하대표의 의지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던 하대표가 벤처기업 창업의 길을 걷게 된 건 운명과는 같았다. 유독 사업에 대한 열망이 컸던 그의 아버지는 네번이나 실패를 경험했고 못다 이룬 자신의 꿈을 아들이 대신 이뤄주길 원했다. 그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업가의 길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 결국 대기업에서 촉망받던 그는 울타리를 벗어나 험한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게 됐다. 지금도 하대표의 사무실에는 아버지께서 손수 붓으로 써주신 '協和健志' 네글자가 의미심장하게 걸려 있다.

혁신적인 플로팅아이디 기술을 가지고 창업했을 당시 회사 이름은 '파이란테크'였다. 알을 깨는 고통 없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없다는 의미였고, 세상에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특허를 자랑하는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MP3플레이어, 디지털인감도장 등이 연달아 상용화에 실패하고 말았다. 투자금마저 바닥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 바로 디지털도어락. 그렇게 처음 등장한 게이트맨1.0이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서 하대표의 화려한 비상이 시작됐다.

디지털도어락으로 재투자유치에 성공한 하대표는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회사의 비전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사명을 변경했다. 사내 공모를 통해 확정된 이름이 지금의 'iRevo'이다.

"저희 사명은 'I revolutionize the world'의 줄임말로 전 세계 고객의 불안을 해결하는 디지털 혁명가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over I'가 돼 자신을 극복하자는 뜻이기도 하지요."

게이트맨의 등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아이레보는 사명만큼이나 혁신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2001년, 열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게이트맨2.0을 탄생시켰고, 2003년에는 코스닥 등록은 물론 KT마크10주년 기념 유공기업 대통령상까지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현재까지도 5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점유율 51%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디지털도어락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전 세계

적으로도 디지털도어락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하고, 잘 만드는 회사로 인식돼 디지털도어락의 대명사로 인정받을 정도여서 가히 벤처기업 글로벌화의 주역이라 할 만하다.

하대표는 이제 디지털도어락을 넘어서 홈네트워크 시큐리티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도어락이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인식될 것이며 유비쿼터스 디지털 컨버전스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 최근 출시된 e게이트맨의 경우 원격컨트롤이 가능해 전화로 문을 열거나 가스 불을 끌 수 있고, 침입자를 알려주는 보안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어락 하나로 문단속과 함께 집단속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처럼 게이트맨이 개발된 지 6년 만에 거둔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

## 벤처 성공의 열쇠는 경영 방식

하대표가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기업이념 정립과 실천이다. 사람이 각자의 철학, 가치관, 행동양식에 따라 다른 길을 가듯이 기업 역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 그의 소신. 창의중심, 고객중심, 도덕중심으로 대표되는 아이레보의 정신이 그 산물이라 하겠다. 또한 <영혼이 있는 승부>, <카네기 인간관계론> 등을 토대로 3박4일에 걸친 임원회의 끝에 결정한 윤리헌장은 직원들의 행동지표가 되고 있다.

"벤처기업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영능력입니다. 직원이 10명일 때와 50명일 때 필요한 경영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죠. 마치 성장통을 경험하듯 기업경영에도 성장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도와 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벤처기업의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하대표는 커뮤니티 조성을 제안한다. 인사, 마케팅, 생산, 교육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실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 실패 사례의 반복을 방지할 뿐 아니라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경영방식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날 직원 158명을 거느린 탄실한 기업을 일으키기까지 그가 맛봤던 좌절과 실패 역시 후배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이사로서, 협회가 벤처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재홍 대표. 도전과 모험을 통해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벤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하는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기술독립군임에 틀림없다.

## Tip.....iRevo spirit

- 핵심가치 1 : 創意中心 우리는 달라야 한다. 그것도 철저하게 달라야 한다.
- 핵심가치 2 : 顧客中心 우리는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핵심가치 3 : 道德中心 우리는 몇몇하다. 회사 문을 닫아도 결코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